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18
vol. 42

Summer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Contents

중앙약대 동문회보 2018년 여름호

시론

- 3 소통과 화합이 발전의 밑거름이다!
한갑현(26회) 부회장

동문회소식

- 5 화보
- 8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위수여식
- 11 약학대학 동문회 최종 이사회를 다녀와서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 13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1차 정기총회
- 16 2018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골프 축제
김광식(30회) 사무총장

여동문회소식

- 20 여동문회 봄소풍
백영주(30회) 총무
- 동기회소식
- 24 가자 입학 40년 전으로
윤용혁(26회) 총무
- 27 따뜻한 힘이 되어준 간이역의 첫 삽
최명수(41회)

특별기고

- 29 좋은 관계는 행복하다
김수배(21회)
- 32 동문들의 힘으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명성을 회복하자
이상준(21회)

지부소식

- 37 약대 동문회 국제산학협력기금 조성에 일조
- 38 부산동문회 원로회원 추억여행
황명석(25회) 총무
- 38 임태항(14회) 동문 봉화군수 당선
- 38 김 구(12회) 자문위원 타계

39 만평

- 40 회비내역
- 42 장학기금
- 43 편집후기

약국도움이야기

- 34 진균(Fungi)
편집위원회

소통과 화합이 발전의 밑거름이다!

우리 약사회는 다른 어떤 보건의료 단체보다 회원 단합이 뛰어난 조직이다. 말할 것도 없이 그 힘의 원천은 소통과 화합에 있다. 그러나 최근 각급 약사회가 보여준 모습들은 소통과 화합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으로 비춰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소통과 화합은 약사회에만 국한된 범주가 아니다. 현대사회가 개인화·다원화·다양화되면서 상호 관계에 있어 소통과 화합은 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 사회나 약사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각기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주장하는 바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신뢰와 존중 속에 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속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약사회 회무나 동문회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물며 조선시대에도 절대 권력자인 왕이라도 정무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조선시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왕이 아니라 의정부였다. 이 기구에서 열띤 논쟁과 합의 속에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됐다. 비록 왕에 따라서 의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강화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그러했다.

사마천은 사기(史記)에서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를 다섯 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가장 잘한 정치는 백성의 마음을 따라 다스리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익으로 백성을 이끄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도덕으로 백성을 설득하는 것이다. 나쁜 정치는 법대로 하는 것이며, 가장 나쁜 정치는 백성과 다투는 것이라고 한다.



한 갑 현(26회)
부회장

사마천이 제시한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의 예는 작금의 각급 약사회에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 회원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늘 소통하고 화합하는 회무 운영이 필요하다.

조광조는 언로가 통할 때 나라가 다스려져 편안하며, 막힐 때 어지러워져 망한다고 했다.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백성은 복종하지만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임금을 버린다는 정도전의 말도 깊이 새겨야 한다.

입 다물라는 '신언패(慎言牌)'를 만들어 신하들의 목에 채웠던 연산군, 지난해 국민들의 손에 의해 끌어내려진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보면 옛 선조들의 말에 틀린 것이 없다.

이처럼 소통과 화합은 중요하다. 여기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은 실천이다. 말로는 약사회와 동문회의 소통과 화합을 입이 닳도록 외치면서 행동에서는 불통과 독선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천은 진리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오직 실천적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오류를 수정해 왔고 현재까지 발전해 오고 있다. 소통과 화합은 이러한 역사적 실천의 자양분이며, 약사회와 동문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경쟁력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다. 우리 약사사회는 편의점약 품목 확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대체제제 간소화와 성분명 처방 등 다양한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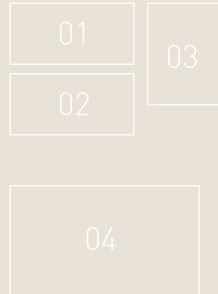
이 약계 현안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회원, 타 직능, 정부,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선에 서게 될 것이다.

약사직능의 미래를 개척하고 후배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은 선배들의 몫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와 동문회의 발전은 필연적이며, 그 기반으로 약사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자세가 정착되어야 한다.

조선시대 이황과 기대승은 30년의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7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 유명한 사단칠정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두 유학자의 논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 01 3월 3일_ 여동문회 월례회
- 02 3월 10일_ 38회 동기회 모임
- 03 3월 10일_ 동문회사무실 이전 개소식
- 04 3월 10일_ 회장단회의 및 젊은기수 모임





01

02

03

04

05

01 3월 27일_ 안양분회 모임

02 4월 1일_ 여동문회 봄소풍

03 4월 8일_ 최종이사회

04 4월 9일_ 미얀마 A A Medical 제약 Zaw Moe Khine 사장
명예박사 학위 수여에 관한 총장 면담

05 4월 11일_ 감사수감





02

02

03

04

- 01 6월 3일_ 골프대회
- 02 6월 8일_ 멘토링데이 발대식
- 03 7월 14일_ 전현직사무총장단 모임
- 04 7월 24일_ 회장단회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위수여식

“약사로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

약학전공 66명, 제약학전공 62명 총 128명 약학사 배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이 2018년 2월 21일 102관(약학대학 R&D센터) 3층 대강당에서 영예의 졸업생들과 그 가족들, 선후배들의 축하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62회로 약학전공 66명, 제약학전공 62명 등 총 128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다.

약학대학 학부장 황광우(35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학위수여식은 오경택(38회) 학과장의 약학대학 연혁보고에 이어 황완균(26회) 학장이 행사에 참석한 손동헌(1회), 염정록 명예교수님과 함께 모교 교수진 및 내빈들은 일일이 소개했다. 내빈으로는 약학대학 동문회 홍중오(21회) 회장, 곽나윤(35회) 여동문회장, 김수배(21회) 수석부회장, 김광식(30회) 사무총장이, 외부인사로는 대한약사회 조찬휘(15회) 회장, 한봉길(27회) 대외협력위원장, 최광훈(22회) 경기도약사회장, 김경우 동작구약사회장, 임종철(19회) 한미약품 자문위원, 김중효(21회) 일동생활건강 사장, 우중오(29회) 하이텍팜 이사, 김정일(30회) 삼진제약 상무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출발을 앞둔 후배들을 격려했다.



황완균 학장은 식사를 통해 “짧게는 6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학창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된 졸업생들의 노고와 성공을 치하하며, 사랑과 희생으로 뒷받침하고 이끌어주신 부모님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웅 윤성빈 선수의 과거는 그 뒤에 숨어있는 피와 땀과 노력의 산물임을 기억하며, 이제 약사올림픽 경기의 출발점에 선 졸업생들은 열정과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레이스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은 약대 통합 6년제의 원년이며 중앙대학교 미래 100년으로 가는 원년으로, 미래 최고의 약학대학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정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고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동문회 홍중오 회장은 축사에서 “먼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도달한 졸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명문 약학대학으로 자리매김한 지금 약의 전문가이자 보건환경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청춘의 기회는 공평하며,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진다.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자신의 꿈에 도전해야 한다. 도전이야말로 청춘의 전유물이며,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여러분의 꿈과 도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본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학위증 수여 의식이 진행되었는데, 황완균 학장은 졸업생들을 대표하여 약학전공 김의석 학생과 제약학전공 최부원 학생에게 학위증을 수여하고 학사모의 태슬(술)을 넘겨줌으로써 학사로서 재탄생하게 되었음을 알렸다.

행사에 참석한 모든 교수들이 단상에 도열하여 전체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축하의 말을 전함으로써 이번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2017학년도 제62회 졸업생 명단

약학전공

강관훈	강영휘	강은비	강태훈	강한나	고정윤	구윤태
권민지	김가희	김건민	김나현	김도연	김도현	김동민
김동휘	김솔이	김수빈	김수은	김승원	김예영	김의석
김정석	김중규	김진하	김태욱	김효정	노연우	문가영
문수완	문혜지	민동영	박민우	박병국	박상준	박소영
박제혁	박진우	박태광	박현수	박현주	박혜원	박혜진
배현호	서유미	성민선	송시현	신재범	오지수	유승아
유현주	이민경	이영재	이인우	이정은	이찬미	인정렬
조승현	주민정	최동균	최용건	최원석	최윤혜	하종관
한수영	한예은	홍서윤	【이상 : 약학전공 66명】			

제약학전공

강진국	구형모	김민지	김예슬	김지현	김 집	김혜진
김희정	남기현	남현정	류미희	박세진	박소라	박정진
박주혜	박지윤	방영지	배유정	송지은	송현주	신성식
신윤정	안준영	양지현	여다인	염민혁	우건희	원웅록
윤승환	이상현	이수현	이승은	이아나	이여름	이연경
이유진	이의진	이재기	이재하	이정규	이준명	이지은
이혜령	이희은	이희주	장재영	장태준	정계은	정민경
정혜윤	주경희	진정호	채인혜	최부원	최연승	최은호
최재일	최종환	최한솔	한상명	한석경	함석란	
【이상 : 제약학전공 62명】						

수상자 명단

교내수상자

구분	성명
최우등(대학수석)	김지현
최우등(학부수석)	박소영
최우등	이민경, 김나현, 송시현, 송현주
우등	한상명 외 9
우수	채인혜 외 12
공로상	한석경, 유승아

교외수상자

기관명	성명	기관명	성명
대한약사회	김지현	26회 동기회	김예영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박소영	30회 동기회	여다인
서울특별시약사회	이민경	(주)한미약품	구윤태
경기도약사회	김나현	(주)일동제약	권민지
동작구약사회	송시현	(주)삼진제약	김수빈
본동문회	송현주	(주)간일제약	남현정
여자동문회	김솔이	(주)하이텍팜	김도현
나사모	이민경		최현승
21회 동기회	한상명	(주)온누리에이치엔씨	박지윤

교내 학술상 우등 수상자

한상명 김솔이 여다인 구윤태 권민지 김수빈 남현정 박지윤 김예영 서유미

교내 학술상 우수 수상자

채인혜 장태준 박혜진 박주혜 민동영 남기현 문가영 최원석 김혜진 박정진 박태광 홍서윤



“ 생거진천(生居鎭川) ”

약학대학 동문회 최종 이사회를 다녀와서



김기명 (18회)
편집위원장



4월 8일 아침 8시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홍종오(21회) 회장 취임 후 첫해를 마무리하는 최종 이사회를 위해 출발하는 반가운 동문들의 얼굴들을 볼 수 있었다.

손동헌(1회), 허인회(4회), 김창중(11회) 명예교수님을 필두로 최종묵(3회), 임완호(6회), 권혁구(9회), 유정사(10회), 윤대봉(14회), 장재인(17회), 김현태(20회) 동문 등 역대 동문회장과 대한약사회 조찬회(15회) 회장을 비롯한 60여명의 이사들과 가족들이 2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진천으로 향했다. 생거진천(生居鎭川)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듯이 충청북도 중북부에 위치한 진천은 예로부터 수해나 한해가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비옥한 농토 그리고 후덕한 인심으로 '살아서는 진천'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리워 왔다. 생거진천(生居鎭川)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듯이 충청북도 중북부에 위치한 진천은 예로부터 수해나 한해가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비옥한 농토 그리고 후덕한 인심으로 '살아서는 진천'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리워 왔다. 4계절 특징이 뚜렷하면서도 오염되지 않는 산하는 계절별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고장이라 하겠다. 다소 쌀쌀한 아침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행이 진천에 머무는 동안 따사로운 봄볕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음도 단지 행운만은 아닐 듯하다.

먼저 김유신 장군이 탄생한 계양마을을 둘러보았는데, 마을 입구 장군터라 불리는 곳에 1983년 유허비가 건립되었다. 연보정과 김유신 장군이 어릴 적 무술연습을 했다는 투구바위와 치마대까지 살펴보고 다음 행선지인 보탑사로 향했다. 보탑사는 신라 때 김유신 장군이 3국 통일을 이뤄냈듯 남북이 통일되기를 기원하며 조성되었는데, 절터만 남아있던 곳에 1992년 대목수 신영훈을 비롯한 여러 장인들이 참여한 불사를 시작하여 1996년 8월 3층목탑을 완공하였고, 그 후 지장전·영산전·산신각 등을 건립하고 2003년 불사를 마쳤다고 한다.

총 높이 42.7m로 강원도산 소나무를 재료로 하여 전혀 못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 방식으로 지어낸 경이로운 모습이었고, 지금도 여러 명의 불자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특히 1층 약사여래불 앞에서는 석가탄신일에 수박을 진상하였는데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서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삼층목탑 옆의 석비는 고려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어서 들른 길상사는 삼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한 흥무대왕 김유신 장군의 영정을 봉안한 사당으로 춘추동풍의 풍경과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신라 때부터 사당을 지어서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낸 곳이라고 하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사당이 불타 없어지고 조선 때는 서원 철폐령으로 수난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1975년 새로 건립된 사당은 앞면 5칸, 옆면 2칸 규모의 팔각지붕집인 흥무전에 영정을 모시고 있으며, 이 외에 흥무대왕 신성비, 김유신장군 사적비 등이 있으며 지방기념물 제 1호로 지정되어 있다.

연곡리 석비는 거북받침(귀부) 위에 비신을 세우고 이수를 얹은 아홉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물려고 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조각하였으나, 비문이 없어 일명 백비라고 부르며 귀부의 머리 형태로 보아 고려초기작품으로 특징한다.

진천 종 박물관은 전통 문화유산인 범종에 대한 예술적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건립되었다고 한다. 종에 대한 자료 검색과 소리 체험 및 음향감상 코너, 종 제작과정의 밀납 재현 코너와 관람객들이 직접 종 문양 탁본과 타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근처에 국내에서 가장 앞선 석장리 고대 철 생산 유적이 있다. 직접 종을 올려보니 애절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묘한 감동과 흥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돌아오는 고속도로 위에서는 차창 밖으로 세차게 소나기가 쏟아졌고, 어느 지역에서는 함박눈이 내렸다고도 한다. 역시 생거진천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있었던 진천만큼은 절대 따스한 봄날이었기 때문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상세한 역사해설과 해박한 지식으로 안내해 주신 권혁구 회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그리고 아름다운 봄나들이 이사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준비해준 홍종오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박실장께도 감사드리는 바이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1차 정기총회

“ **참여 · 화합 · 소통의 동문회가 되자** ”



지난 5월 19일 약학관 11층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1차(2018 회계연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는 홍종오 동문회장과 김광식 사무총장을 위시한 현 회장단을 필두로 많은 내외빈과 동문들이 참석하여 동문회 1년 살림을 결산하고 새로운 1년의 준비를 다짐하는 실무 토론의 장이 진지하면서도 여유있게 진행되었다.



홍종오 동문회장은 제일 먼저 총회 석상에 참석한 내외빈과 동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각 동기회나 시도지부 모임, 정기총회 등 여러 행사를 다녀보면서 화려한 조명이나 환호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동문회를 위해 애쓰는 동문들을 보며 앞으로의 미래가 더 희망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지난 1년간 도움을 준 모든 동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홍회장은 “특히 해를 거듭하며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동문회는 물론 동기회나 실험반 등 연 9,0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동문회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의 정화라고 할 수 있는 장학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창수 중앙대학교 총장은 축사에서 “올해는 중앙대학교가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약학대학 동문은 중앙대학교 건인차로서 중앙대학교를 사학의 명문 중앙대로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치하하며, “우리 대학이 기본에 충실한 대학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유능한 교수들을 지속 초빙하고 있으며 약학대학 역시 중대형 사업 수주 성과와 다가올 통합 6년제로의 성공적인 정착 등 한국 최고의 약학대학, 나아가 세계의 약학대학으로 우뚝 서나가고 있다. 동문으로서 모교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김중태 중앙대학교 총동문회장은 “약학대학은 1953년 설립 이래 8,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동문들이 의약품 관련 전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보건 의료 전문인으로서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약업계 지도층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각 시도지부장 등 사회적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약업계를 이끌고 있다”고 격려했다.

수상자 명단

- 총장 공로패 | 이규진(9회), 김현태(20회)
- 학장 공로패 | 신완균(7회), 이상준(21회)
- 총동창회장 공로패 | 양주석(21회), 이해룡(28회)
- 동문회장 공로패 | 김강현(17회), 류화송(20회)
이영희(20회), 황선관(37회)
방근철(39회), 최명수(41회)





황완균 학장은 축사를 통해 “2018년 기준 9천여만원의 동문회 장학금은 중앙대학교 전체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으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동문들의 발전기금 쾌척에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학교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학장은 “2018년 기준 35명의 교수 확보 등 공격적인 행보에 더해 성공적인 통합 6년제로의 정착률과 더 많은 중대형 사업수주를 통해 한국 최고에서 더 나아가 세계의 대학으로 우뚝 서 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국적은 변해도 학적은 변할 수 없다”면서 “화합과 단결을 통해 하나 되는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회무보고와 2017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 심의와 2017년도 특별회계(장학기금) 결산 심의의 건, 감사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안), 2018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8년도 특별회계(장학기금) 예산(안) 등에 대한 승인이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동문회는 2018년도 3대 목표를 참여, 화합, 소통으로 정하고 각 지부, 분회 및 동기회 모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선후배 간의 유대강화 및 친목도모, 회원간 소통 강구, 심포지엄 개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내빈으로는 최종목, 권혁구, 유정사, 서국진, 장재인, 김현태 고문과 한석원, 김창중, 손의동 자문위원, 김성지, 이경옥, 김홍진 감사, 꺾나운 여동문회장, 양덕숙 여동문회 고문과 함께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문재빈 총회의장,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이 참석했다.

학교 측에서는 황완균 학장을 위시하여 손동헌, 허인회 명예교수와 함께 다수의 현직 교수들이 자리를 지켰으며, 학내외 업무로 바쁜 와중에 김창수 총장이 직접 참석하여 축사는 물론 끝까지 자리를 같이 했다.

특히 서울대약대동문회 이형철 부회장, 이화여대개국동문회 이시영 회장, 덕성여대동문회 김은주 회장, 김준겸 부회장, 동덕여대약대동문회 이순훈 회장, 숙대약대개국동문회 송유경 부회장, 김희재 국제이사, 한국여약사회 김성순 회장 등이 우정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히든밸리 골프장의 함성

2018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골프 축제



제48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공지

- 일시 : 10월 7일(일) 오전 10시
- 장소 : 중대부속중학교운동장

- 종목 : 대항전 - 족구, 바둑, 제기차기, 윷놀이, 미니골프, 생맥주(3000CC) 빨리먹기 등

청백전 - 단체줄다리기, 계주



김 광 식 (30회)
사무총장



거두절미 하고 최근 우리 동문회의 최고 화두인 '세계적인 명문 동문회 만들기'는 우리 동문들 모두가 관심과 수고를 더해야 가능한 일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선결 조건으로 만남이 잦아야 친해지고 덩달아서 일도 함께 잘 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에서 골프를 독립시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골프 축제'를 만들었고, 올해로 벌써 2회째입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21대 동문회'를 21회 홍종오 회장님, 김수배 수석부회장님께서 이끌어 오신지 벌써 1년입니다. 더 많은 동문의 동문회 사랑과 젊은 기수 동문의 동문회 참여 증가를 위해 많은 행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모교 발전을 위해 선배님들께서 훌륭히 만들어 오신 동문회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슬로건도 만들고 더욱 열심히 동문들을 위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골프 축제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행사를 위해 기초를 닦아놓아야 됩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그런 마음으로 동문님을 바라보고 동문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동문의 참여라는 보답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골프대회는 다 함께 플레이를 시작하고 같은 시간에 끝나
쳐 이후 행사를 진행하기 좋게 '샷건' 방식으로 하기로 하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골프장에 여러 번 내장하여 각종 비용
과 방식, 시간, 참가인원, 기타 사항을 사전 조율하고 날짜
를 미리 예약해 둡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참가자 초대입니다. 우선 기수 대표님과
지역동문회 회장님들, 그리고 우리 동문 골프 모임인 중앙
회, 서울청룡회, 소청룡회에 공지 드리고 연락드립니다. 회
장님이 연락이 안 되면 총무님께 연락합니다. 다들 반겨 주
십니다. 내친 김에 상품도 하나씩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명실 공히 동문들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가족 동반 참가를
기획했습니다. 선배님들의 연세를 생각하여 연락도 문자와
카카오톡, 그리고 전화를 다 같이 합니다. 물론 공문도 보
냅니다.

애는 닳는데 반응이 별로인듯 하여 안절부절 입니다. 사람
이 부족해서 일까요. 그래도 많은 선배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십니다. 모든 일은 인사(人事)라고 동기회장님 또는
지역동문 회장님의 열정과 능력에 따라 참가율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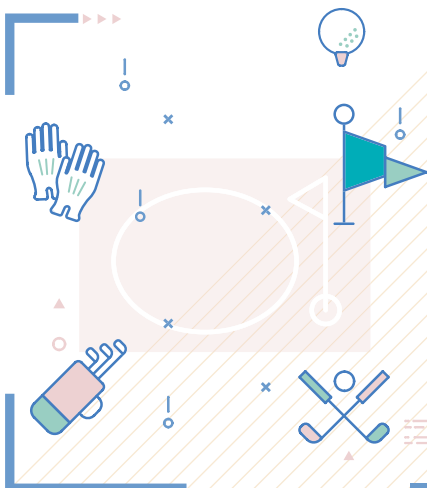
열심히 해 주시는 분께 보답해 드리는 것도 동문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만 성의의 상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간은 항상 빨리 지나갑니다. 사실은 동문회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지난해에 대한약사회,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등 지역 약사회에 미리 동문회 행사 예정일을
통보해 드렸었습니다.

2018년 6월 3일 일요일, 날씨가 늦봄이라 많이 더울 수도
있고 혹시 이른 장마라도 시작되면 비가 행사를 그르칠까
걱정도 됩니다. 다행히 자잘한 문제 외에는 순조롭게 흘러
가서 당일 아침에는 햇님이 방긋 웃어줍니다. 차 안에는 그
간 준비한 골프백 2개를 비롯하여 퍼터, 음료 등 온갖 선물
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겨우 몸을 차에 끼워 넣어 운전을
합니다.

일을 할 때는 꼭 도와주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신께서 복을
많이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조양연(32회), 윤미숙(30회)
사무부총장님, 그리고 미리 나와서 도와주신 김선자(30회)
등 친구들도 수고하셨습니다.

2018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골프 축제



개인 시상내역

우승(신페리오)	오대근(31회)
메달리스트	이강옥(26회)
여자 1위	김유선(26회)
준우승	천세영(30회)
준 메달리스	조준상(33회)
니어상	김애경(18회)
장타상 남,여	강의석(35회)
	이숙희(28회)
다버디상	정찬헌(20회)
다파상	최민규(26회)
다보기상	장재인(17회)
다따블상	이현수(25회)

단체전

· 동기회	우승(4인)	26회 동기회
	준우승	31회 동기회
	3위	28회 동기회
· 분회	우승(4인)	성남분회
	준우승	안산분회
	3위	용인분회
· 최다 참가동기회	1등	26회동기회
	2등	28회동기회
· 최다 참가분회	1등	안산분회



이번 행사에 여러 동문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전임 사무총장들을 비롯한 여러 동문께서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습니다. 잊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 방식은 신페리오 방식(New Perio Method) + 샷건 (Shot-gun) 형식입니다. 신페리오 방식은 서로 다른 기량을 가진 플레이어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시합을 할 수 있도록 기준 홀을 정하여, 그 홀의 점수를 기준으로 핸디캡을 정하고 선수의 점수를 재평가하여 경기결과에 반영하는 핸디캡 시스템입니다. 샷건 방식은 각 선수들이 자신이 처음 시작하는 홀에 위치한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플레이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팀은 1홀부터 경기를 시작해서 18홀에서 끝날 것이고, 어느 팀은 3홀부터 시작해서 2홀에 경기를 마칠 것입니다.

참가 하신 분들의 2/3정도는 행운권이라도 당첨되게 해드리고자 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수석부회장님께 상품을 하나씩 제공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물론 사무총장도 동참입니다. 작년 기고에서 선후배 동문님들께 의미 있는 상품 제공의 기쁨을 누리시길 말씀 드렸는데 미미합니다. 동문님 많이 많이 동참해 주세요, 동문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길이고 참여와 동참이 동문 사랑의 시작입니다. 축제는 1회 손동헌 명예교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기수는 16명까지 동참하는 등 총 33팀이 참가하여 히든밸리 골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다들 즐거운 표정으로 행복 가득한 하

루를 보내셨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대한약사회 조찬휘(15회) 회장님, 경기도약사회 최광훈(22회) 회장님, 약학정보원 양덕숙(28회) 원장님, 약사공론 장재인(17회) 사장님,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정상수(24회) 사장님, 저서를 제공해 주신 김창중(11회) 명예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가는 못했지만 도움을 주신 충청남도약사회 박정래(26회) 회장님, 인천시약사회 최병원(30회)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한약사회 부회장이신 함삼균(24회) 소청론헌회 회장님, 서울청론헌회, 중앙회, 소청론헌회, 우리 82학번의 용표 익수제약 정용진 사장님, 기타 물심양면의 도움을 주신 제약사 및 선후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웠던 점은 몇 지역 동문들이 참석을 하지 않고 따로 모임을 가진 점과, 미리 알려 드렸음에도 그날 다른 행사 일정이 겹친 일부 동문님, 그리고 젊은 기수의 동문들도 골프를 많이 하는데 참석률이 낮았던 점입니다. 모든 동문들이 부담 없이 하루를 즐기는 날이 되면 더 좋겠고, 이를 기회로 전 약업인이 모이는 기회가 되고 장학기금 마련이나 기타 좋은 의미를 가지는 행사로 변화를 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가자, 세계 명문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백영주 (30회)
총무



2018년 4월 1일 일요일 아침, 드디어 동근 해가 떴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앙대 약대 여동문회가 처음으로 소풍을 가는 날입니다.

어렸을 때처럼 삶은 계란과 사이다에 그날만 먹을 수 있었던

갈색 빛깔 바나나 뭐 이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여동문회에서 처음 가는 소풍이라 설렘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아마도 다른 모든 분들도 저만큼의 들뜬 기분으로

발길을 옮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린 후배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선배님들이 계시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럴수록 더 자주 나와서 얼굴을 익히면 동문이라서 얼마나 따뜻하고 의지가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 약대 우리의 자존심은 영원히 이어질 역사이니까요.

아침 8시 각자의 개성만큼이나 알록달록한 점퍼를 차려 입은 열한분의 여동문들이 탑승한 안면도행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곽나운(27회) 회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버스는 넓고 안락하여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덕화(2회) 대선배님부터 막내격인 저에게 이르기까지 몇 십 년이 차이가 나는 선후배가 모였지만 전혀 격의라고는 느낄 수 없는 자연스런 흥겨움에 소풍은 역시 나이를 초월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두 시간 남짓 달려온 버스는 우리를 만리포 옆 천리포수목원에 내려 주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여유롭게 쳐다보는 활짝 핀 수많은 꽃들과 이름도 알 수 없는 희귀 수종의 나무들이 우리 일행들의 마음을 한껏 들뜨게 했습니다. 직업적 특성상 약국에 매여 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약사들이 모든 걸 다 잊고 이런 꽃구경을 한다는 것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서울에서 차로 두 시간만 달려와도 꽃도 보고 바다도 볼 수 있지만 매일매일 약국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일에 몰두하다보면 일요일은 사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싫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네 일상이지요. 또한 아직 아이들이 어린 여동문들은 일요일 하루라도 아이들과 보내면서 평소 못다한 엄마로서의 의무 역시 충실히 수행해야겠기에 그나마의 작은 여유도 반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보니 아쉽게도 30기인 저와 박복자 동문이 막내 아닌 막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쫓길 일 없이 여유롭게 산책하듯 수목원을 한 바퀴 돌고 다같이 맛깔나는 커피 타임을 가지니 마치 우리가 수목원의 일부인 듯 새롭게 핀 꽃들인양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일상을 탈출했다는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워낙 컸으니까요.



그러는 와중에 대전에서 개최된 대한약사회 워크샵에 참석했던 약사회 분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희식(28회), 김은진(29회), 우경아(36회) 동문들이 합류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피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정을 소화하고도 ‘우리는 우리니까’ 자석에 끌리듯이 발길이 이곳으로 향하는 게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원한 바다를 보면서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해산물이 내음 가득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식사보다 더 반가운 분회장님들과 여동문회 명예회원이나 마찬가지로 한봉길(27회) 동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늘 보는 얼굴들인데도 이산가족 상봉을 방불케 하는 반가움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저절로 우러나오는 동문들끼리의 반가움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철인 쭈꾸미와 각종 해산물을 푸짐하게 먹고도 맛있는 국수까지 양보하지 않고 배를 채웠습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흔쾌하게 사비를 털어주시신 곽나윤 회장님의 진심까지 더해지니 마음까지 한껏 부풀어 올라 식사자리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100% 아니 300%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바닷가 근처 안면암에 들렀습니다. TV에서만 보다가 막상 와서 직접 보니 그 웅장함에 저절로 숙연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가로이 바닷가를 한 바퀴 돌고 오후 4시쯤 진한 아쉬움을 남긴 채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만나절정도 밖에 안 되었지만 실제 느꼈던 감동은 며칠을 지낸 것 같은 측량할 수 없는 깊이로 다가왔고, 처음으로 시도한 우리의 봄소풍이 이렇게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몇 명만 와도 버스는 출발한다고 굳은 의지로 진행하신 곽회장님도 뿌듯하시겠지만 8년째 여동문회 총무를 맡고 있는 저에게도 가슴 뭉클한 무언가가 솟구쳐



참으로 오랜만에 여유롭게 쳐다보는 활짝 핀 수많은 꽃들과 이름도 알 수 없는 희귀 수종의 나무들이
우리 일행들의 마음을 한껏 들뜨게 했습니다. 직업적 특성상 약국에 매여 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약사들이
모든 걸 다 잊고 이런 꽃구경을 한다는 것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오름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내린 결론은 굳이 여행이라는 말
에 주눅들 일 없이 정감어린 소풍에 꽃혀 '몇 명만 모여도 무조건 소풍 가지' 로
마무리했습니다.

재작년인가 어느 약사회 행사에서 최근에 신설된 약대의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
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기존 약대생들에게 제일
부러운 것이 든든한 선배님들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했던 것이라 우리는 잊고 살았던 것! 남들이 이리도 부러워하는 선배
님들의 존재감, 억만금으로도 못사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그분들. 이쯤에서
저보다 어린 동문들에게 짝뿔 선배라고 한 가지 부탁을 해야했습니다. 선배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것이고, 당연하지만 잊고 살았던 우리 모교가 건재해야 우
리가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모교를, 선배들을 모
셨으면 합니다.

어린 후배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선배님들이 계시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럴수록 더 자주 나와서 얼굴을 익히면 동
문이라서 얼마나 따뜻하고 의지가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중앙대 약대 우리의 자존심은 영원히 이어질 역사이니깐요.

이런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우리의 봄소풍은 그야말로 완전 대박,
성공의 신화를 기록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동문님들,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
지 노심초사 하며 애쓰신 곱나운 회장님, 그리고 묵묵히 약대동문회를 지켜내고
있는 박실장님께도 두루두루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윤용혁 (26회)
총무



가자 입학 40년 전으로 26회 입학 40주년 기념식을 마치고

우리는 누구? '대 중약 78학번' 이다(이 말은 사실 후배들이 붙여 준 것이니 오해들 마시라).

유신 말기에 청운의 꿈을 안고 청라언덕을 오른 벗들이 강산도 네 번 구른 오늘, 입학 40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선우일원 회장의 인솔 하에 오십 여명의 동기들이 강릉에 속속 모여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모두 명산이라 부른다.

서울에서는 정기사가 모는 마차에 명산들이 실려 오가는 대화가 즐겁고 정겹다. 어느덧 마차는 백두대간 대관령을 가로질러 강릉시청에 다다른다. 선자령은 언제나 벗들을 반겼고 벌써 전국에서 먼저 올라온 명산들이 뒤늦은 일행을 반갑게 맞이한다.

“전국의 명산들이 되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잠시 삶의 무게를
조제실이나 사무실에 걸어두고
달려온 벗들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

이번 행사의 기획과 안내를 맡은 김학철 동기가 향토사학자답게 개량한복이 잘 어울리는 품격을 갖추고 달변을 토한다. 그리고 세세한 일정을 설명하는 동시에 푸짐한 저녁 만찬이 이어졌고, 이후 숙소 마당에는 양양에 뿌리를 내린 이채권 동기가 챙긴 음향시설과 이어진 트럼펫과 클라리넷 연주가 멋지게 봄날 밤하늘을 수놓는다.



“ ‘의에 죽고 참에 삶’ 의 기치로 하나가 된 중약 78 입학 40주년 행사는
 경포대 호수를 움직일 만큼 의미가 컸고,
 강릉시장도 환영과 고마움을 표할 정도로 대단하였다.
 항하사(恒河沙)의 무량대수(無量大數)인 필연으로 만나
 벗들이 언제나 함께 하기에 감동은 배가 되었으리라. ”

‘대 중약 78’ 만이 풀어 놓는 고품격의 연주회다. 다른 동기가 가져간 하모니카와 클라리넷의 합주는 처음인데도 잘 어울렸고 그 뒤로 트럼펫 협연이 울려 펼쳐진다. 음향에 흠린 듯 주변의 관광객들도 하나 둘 모여든다. 흥겨움이 극에 달하자 명품가수 조필연 동기와 어우러진 클라리넷과 하모니카의 달콤한 멜로디가 화음을 이루니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앙코르 소리가 요란하다. 이렇게 1박 2일의 숨가쁜 일정이 또 하나의 추억을 남기며 하루의 그림일기장을 넘긴다.

다음날 아침 신실한 벗들은 종교행사로, 또 다른 친구들은 파도가 포말을 물고 달려오는 강릉 해변가를 거닌다. 사십년 전 풋풋하던 신입생 시절의 MT도 이랬으리라. 78 동기들 중에는 마라톤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벗들

이 많다. 아마추어 마라토너의 꿈인 서브스리를 수만 약사중 최초로 이룬 친구도 있고, 청남대 울트라 마라톤의 심장생을 이루고도 아직도 이팔청춘으로 달리는 벗도 있으며, 중앙대회 풀코스 100회를 이룬 벗도 있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벗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경포호수를 세 바퀴나 돌고, 한 친구는 자전거로 강릉의 아침풍경을 여유롭게 돌아보고, 또 다른 벗은 해변가 모래사장을 달리니 그 건강미에 갈매기도 환호를 보낸다.

흘러간 사십 년의 세월이 얼굴에 고랑을 내었어도 마음만은 청춘이니 모두가 곧바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다. 이제 연식은 우리들의 만남에 있어서만큼은 무용지물이다. 강릉 초당두부집의 맛갈스러운 아침식사를 마친 동기들 모두는 얼마 전 온 국민이 그토록 ‘영미! 영미!’ 를 외쳐대던



“유신 말기에 청운의 꿈을 안고 청라언덕을 오른 벗들이 강산도 네 번 구른 오늘,
입학 40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선우일원 회장의 인솔 하에 오십 여명의 동기들이
강릉에 속속 모여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모두 명산이라 부른다.”

평창 동계올림픽 강릉 컬링경기장을 찾아 그날의 감동을 재현해 본다. 바닥도 빗질해보고 빙판도 지쳐가면서 다시 영미, 영미!!

그런 후 강릉이 낳은 시인이자 동해지킴이 김학철 동기의 시비가 세워진 주문진에 도착해 기념촬영과 축하의 시간을 가진 후 다시 강릉으로 돌아와 새로 개설된 해안가를 두 시간에 걸쳐 트레킹을 한다. 모두들 씩씩하게 잘도 걷는다.

우리는 누구?

‘대 중약78’ 이기 때문이리라.

전국의 명산들이 되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잠시 삶의 무게를 조제실이나 사무실에 걸어두고 달려온 벗들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 중약인의 긍지로 살았기에

더욱 더 제약회사를 운영하며 일이 바빠 비록 참석은 못했지만 축하인사를 전해온 친구도 있고, 몸이 불편해도 동기들이 보고 싶어 지방에서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온 벗의 열정과 정성에 진한 감동이 밀려온다.

‘의에 죽고 참에 삶’의 기치로 하나가 된 중약 78 입학 40주년 행사는 경포대 호수를 움직일 만큼 의미가 컸고, 강릉 시장도 환영과 고마움을 표할 정도로 대단하였다. 항하사(恒河沙)의 무량대수(無量大數)인 필연으로 만나 벗들이 언제나 함께 하기에 감동은 배가 되었으리라.

중약 78이며, 그대들은 누구?

그 이름 영원하라!

최 명 수 (41회)



따뜻한 힘이 되어준 간이역의 첫 삽 93학번(41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며

스무 살 봄, 약사라는 부푼 꿈과 기대감을 안고 교정에 들어서 푸릇한 청춘을 시작하였었는데 어느새 졸업한지 그 나이만큼 되어버린 오늘 새삼 감회가 남다릅니다. 인생의 첫 스무 해가 지나고 다시 두 번째 스무 해를 보낸 지금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두 20년의 느낌은 사뭇 다른 듯합니다. 국민 보건과 건강을 위한 진실한 약사가 되기 위해 묵묵히 앞으로 정진해 온 두 번째 20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세 번째 20년은 더 빠른 속도로 펼쳐지겠지요? 이제 다음 정진을 위해 잠시 숨을 돌리고 쉬어갈 수 있는 간이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졸업 20주년 행사는 이렇게 우리가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따뜻한 힘이 되어준 간이역의 첫 삽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처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규모의 간이역을 언제까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난감했었습니다. 이미 지난 선배님들의 간이역의 정보를 참고하기는 하였지만 시간이 촉박하였고 부실공사는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백마 탄 기사로 등장한 이들이 바로 동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잠시 잊고 지냈던 친구들을 하나 둘씩



“이번 졸업 20주년 행사는 이렇게 우리가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따뜻한 힘이 되어준 간이역의 첫 삽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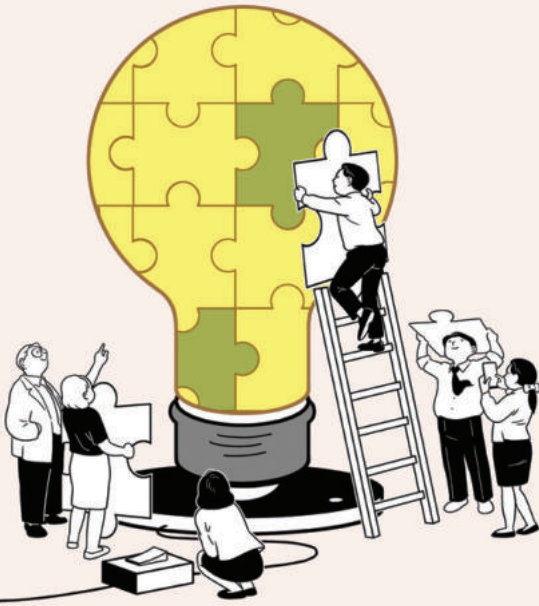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했지만 얼굴과 목소리를 기억하며 마치 영신관 강의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 20대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간혹 오랜만의 연락에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모든 동기들이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지난 3월, 입학 했었던 그 해 봄처럼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둘씩 반갑게 오는 친구들의 모습은 정말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종종 연락하고 지냈던 친구들도 졸업 후 처음 본 친구들도 모두 그 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전혀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

지만 각자 다양한 곳에서 약사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열심히 살아온 서로의 공통분모가 있어서인지 낯설지 않고 반갑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명문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출신답게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약사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앞만 보며 달려왔던 서로의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가올 새로운 20년은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이번 졸업 20주년 행사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회를 선사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의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끈끈한 정이 있는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초석이 되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김수배 (21회)
수석부회장



좋은 관계는 행복하다

여러 모로 부족한 필자가 우리 약학대학 동문회 수석부회장의 자격으로 사업상 맺은 인연을 통해 100주년을 맞이한 모교의 국제협력 사업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그 사연을 소상히 밝혀 후배들의 인생 설계에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된 내용은 지난 8월 4일 중앙대학교와 미얀마 Pacific Medical Foundation과의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국제협력기금으로 중앙대학교에 50만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MOU에서 저희 동문회가 가교역할을 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20년 전부터 Pacific AA사의 파트너로 일을 해 왔고, 2017년 GMP공장 완공식까지 여러 과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MOU의 당사자인 조모카인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중앙대에 스스로 기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로서는 약대를 졸업하고 당연히 약사의 직능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의 멘토이셨던 결혼식 주례를 맡아주신 허인회 교수님은 늘 소탈한 큰 웃음으로 인생의 여유를 보여주셨으며, 인생은 긴 여정이고 참는 자만이 목적지에 갈 수 있고, 따라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나를 세일즈하라고 하셨습니다. 약사들도 영업을 알아야 하고, 영업을 통해 사람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더 큰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졸업 후 약국대신 유한양행에 병원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인간관계를 배우고 인생의 폭을 넓혀 갔습니다.

대웅제약에서 초대 PM과장을 거쳐 병원지점장을 맡아 꼴찌였던 실적을 전국 2등으로 끌어 올렸고, 공장 생산부장으로 발령받아 GMP시스템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국내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걸어야겠다고 결심해서 수출을 담당할 수 있는 자리를 찾던 중 만난 회사가 수도약품이었고 대표를 맡아 제약 경영을 배웠으며, 한발



미얀마 학생과 함께
손교수 연수실을 방문한 조회장

더 나아가 2000년에는 파마캠을 직접 설립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그 동안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Win-Win이 되어야 하고, 나 혼자만 아닌 주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인가, 인간은 왜 행복해 지려고 하는가에 대해 저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열심히 노력해서 부귀와 명예도 얻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칫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적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계유지에 필요한 매너, 신용, 배려 등에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하며, 갈등과 투쟁보다는 배려와 인내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파트너의 수보다는 파트너의 질이 중요하고 혼자보다는 같이 가는 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조모카인 회장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당시 수도약품에 근무하면서 해외수출에 관심을 두고 조모카인 부친과 거래를 하고 있었을 때 조모카인은 25세 젊은 나이로 미국에서 MBA(경영학석사)를 취득하고 미얀마에 돌아와 부친의 사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때부터 의약품 수입과 유통에 아주 관심이 많았고 그 결과 AA Medical을 미얀마 최대 의약품 유통회사로, Pacific Pharm을 미얀마 최초의 의약품 생산회사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교역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도움을 요청하여 약사로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겸손하며 승부사 기질을 타고 났으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화를 내거나 흥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조모카인 회장은 저를 Big Brother라고 부르며, 서로 격의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해도나 애정이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제가 제안한 것은 우수한 한국 의약품을 선택하고, 무역거래에서는 신용을 지킬 것이며, 회



사의 성장을 통해 나라 발전을 위해 한국에 대학원생을 유학시켜 배운 바를 자국에 이양하는 것에 더해 미얀마 FDA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것 등으로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GMP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제안에 한바 처음엔 제약공장 생산 경험이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한국 제약의 발전과 성장 과정을 기회될 때마다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여나갔습니다.

그래서 2008년 한국 방문시 모교 손의동 교수를 소개했고, 손교수는 제안에 흔쾌히 승낙을 하여 처음으로 산대(양곤의대)학생에게 전액장학금(CAYSS 프로그램)과 생활비를 보조하였고 현재는 AA 회사 GMP공장에서 품질관리 매니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류퓨킨(양곤약대) 등 5명이 전액 장학금으로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AA 제약공장이 작년 7월에 완공될 때까지 한국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며, 허성회 공장장이 4년동안 본부장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관여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만, GMP 공장은 하드웨어는 최신형태로 만들었으나 인력, 기술, 장비 등등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제약공장의 GMP 시스템의 운영 및 약물의 제형개발 등 연구개발, 의약품 완제품 생산 등을 위해서 한국의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제약 공장을 운영하려면 의약품의 제제 연구가 핵심인 바 대응제약에서 함께 근무 하였던 모교 제제학 연구실 이재휘 교수에게 협조 요청을 하여 역시 승낙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오랜 세월에 걸친 좋은 관계와 인연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조모카인 회장이 행복의 마음으로 공동연구소 설립을 통해 모교에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을 주어 서로 상생하는 밑거름으로 작용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MOU 체결에 이르기까지 열성적으로 후원해준 홍종오 동문회장, 황완균 학장을 비롯하여 모교의 모든 약대 교수님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상준 (21회)



동문들의 힘으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명성을 회복하자

- 재단법인 설립의 종자돈 1억원을 기부하며

필자는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 후 (주)종근당 연구소에 입사하여 26년간 근무하였고, (주)코오롱생명과학에서 6년간 근무에 이어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기관장으로 3년 임기를 마친 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조교수로 초빙을 받아 1년 6개월간 강의를 하다가 지금은 후배가 경영하는 (주)노바렉스에서 연구개발 및 해외 사업을 담당하며 현직을 지키고 있다.

이렇듯 전문성을 살려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중앙대 약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친 덕분이라 여기고 늘 감사하며 일을 하고 있었음을 고백한다. 언제나 학력은 따라다니기 마련이니 일하면서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자기소개에서도 중앙대 약대를 나왔다고 소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싶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대학 평가 결과를 보게 되었다.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Quacquarelli Symonds라는 기관이었다. 궁금증을 가지고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약학대학 평가를 확인하였다. 거기에 실린 약학대학의 순위를 보고 놀라움과 실망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일단 2017년 약학대학 순위에서 서울대 약학대학이 21위에,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약학대학이 50위~100위 사이에 있었고, 한양대, 경희대 약학대학이 101위~150위 사이에 있었으며, 충남대, 이화여대, 부산대 약학대학이 151위~200위 사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는 6가지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대학 명성(Academic Reputation), 둘째는 이시장 명성(Employer Reputation),

셋째는 교수와 학생 비율(Faculty/Student ratio), 넷째는 논문 인용 지수/교수(Citations per Faculty), 다섯째는 외국인 교수(International Faculty), 여섯째는 외국인학생 수(International Students)였다.

결국 내가 찾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세계 200위 안에도 들지 못했고, 한국 내에서도 9위 안에 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학대학이 35개가 있다. 필자가 다니던 시절에는 14개 약학대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 때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2위였다고 자부한다. 왜냐하면 예비고사 성적으로 담임 선생님이 학교를 추천해주시는데 서울대 약학대학을 갈 실력이 안 되면 중앙대 약학대학을 추천해 주셨다. 물론 1차 대학이 서울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몇 개 없어서 일수도 있지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명성이 자자한 명문 대학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필자는 모교에 대하여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필자가 학교에 1년 반을 재직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순위가 혹시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어느 날, 약대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신문에서 본 평가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놓고 고민하다가 당장 시급한 현실의 문제는 좋은 학생들이 들어와야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평가기준에 맞추어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약학대학이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수와 학생 비율, 논문인용 지수/교수, 외국인 교수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핵심 항목을 집중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대학교 본부 차원에서 약학대학만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일, 다른 신설 학과도 많고 공동 배분이 우선인 것이 학교 사회이다. 그렇다면 약학대학만을 위한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니 재단을 설립하여 동문들의 기부를 통해 약학대학의 옛 명성을 찾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으로 귀결되었다.

중앙대 약학대학은 졸업생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 2017년 4월 약업신문에 발표된 대한약사회에 신고한 약사 분포 자료에 의하면 중앙대 약대가 3,512명으로 1위이고, 다음 조선대 약대가 2,912명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대 약대 동문이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 힘으로 중앙대 약대의 옛 명성을 회복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미국의 하버드대학이 동문의 힘으로 세계 일류대학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제야말로 중앙대 약대를 동문들이 명문 대학으로 만드는데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노벨상을 받는 교수를 갖는 대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며, 아마도 모든 동문들도 필자와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일단 명문 대학이 되면 외부기관에서 서로 연구비를 주려고 하여 학교의 위상이 선 순환적으로 좋아지는 것이다. 그 정도의 위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동문들이 힘이 되어주면 향후에는 자연스럽게 명성을 이어가는 명문 대학이 될 것이다. 지금도 중앙대학교에 많은 동문들이 기부하고 있지만, 대부분

은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학금은 학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이나 학업성적이 뛰어난 학생에게 주는 것이지만, 아쉽게도 현재의 평가 지표상 장학금을 잘 주는 것이 대학 평가를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감히 필자가 구상한 재단법인을 소개해 보고 싶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앙대학교본부의 발전기금이 아니라 약학대학의 옛 명성 회복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다. 기업을 크게 이룬 동문도 있고, 회사에서 높은 직급까지 올라

간 동문도 있으며, 약국을 잘 경영하여 성공하신 동문들도 많을 것이다.

중앙대 약대가 옛 명성을 되찾고, 노벨상을 받는 교수가 배출되는 학교로 위상을 높이는데 모든 동문들이 동참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성공한 동문들로부터 10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또 만약 3,000여명의 동문이 월 10,000원씩 기부하면 1년에 3억6000만원 이상의 기금이 모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모인 기금을 운영할 때 교수초빙(노벨상 후보)에 40%, 연구비 지원(노벨상 project)에 30%, 대학원생 장학금으로 20%, 기타 10%로 하며, 운영 이사장으로 중앙대 약대에서 정년을 하신 교수(자원봉사), 이사회 당연직으로 동문회장, 약대학장, 순환직으로 기부자 중 3인, 기타 5인으로 하고, 정관 등은 차후에 정하는 것으로 개략적인 재단법인을 구상해 보았다.

2018년 필자가 중앙대 약대에 1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앞서 이야기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조그만 실천을 한 것이다. 여러 선후배들께서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부는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필자가 가진 소신이다. 1억 원을 기부하기 위해 목적으로 모은 것이다. 옆에서 후원해준 집사람에게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유니세프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고 있지 않은가. 중앙대학 약학대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기부라면 즐겁게 감당하지 않을까 싶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 필자가 중앙대 약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작은 기부가 시발점이 되어 중앙대 약대의 동문들이 힘을 합하여 옛 명성을 회복할 뿐 아니라 날이 높아져가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위상을 기대해 본다.



식물도 아닌 것이 동물도 아닌 것이

진균 Fungi ②

편집위원회

진균의 서식환경

- pH : 대부분의 진균은 약산성을 좋아한다(pH 4-6).
- 온도 : 진균마다 최적의 온도와 생존 가능한 최고, 최저 온도가 다르나 다른 생물종에 비해서는 저온에서도 잘 생존한다(20-35°C). 병원성 진균의 경우 사람의 체온 정도의 온도를 좋아한다.
- 습도 : 습한 환경을 좋아한다.
- 산소 : 대부분은 호기성이나 효모 중 일부는 산소 존재 하에서 더 잘 자라나 산소가 없어도 성장이 가능한 통성 혐기성균이다. 절대 혐기성 진균은 없다.
- 영양 : 광합성을 하지 못하므로 기생생활을 통해 영양분을 획득한다.
- 햇빛 : 광합성을 하지 않으므로 햇빛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며, 어두운 곳에서 잘 성장한다.

진균의 서식환경 병원성 진균류

불완전 균류에 속하는 중요한 병원성 진균으로는 Candida속, Histoplasma속, Blastomyces속, Paracoccidioides속, Sporothrix

분 류	종 류
피부사상균/ 백선균 (Dermatophytes)	· Trichophyton · Microsporum · Epidermophyton
효모성 진균 (Yeast)	· Candida · Cryptococcus neoformans · Pityrosporum ovale(orbitulare)
이형성 진균 (Dimorphic fungi)	· Coccidioides · Paracoccidioides · Histoplasma · Blastomyces
기타	· Aspergillus · Sporothrixschenckii · Madurella

주요 병원성 진균

속, Geotricum속 등이 있으며, 표재성 감염증만을 일으키고 심부조직이나 전신감염을 일으키지 않는 일군의 진균을 피부사상균이라 하는데, 소아포균(Microsporium), 백선균(Trichophyton) 및 표피균(Epidermophyton)의 3군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원성 진균에 대한 인체의 반응

수동적 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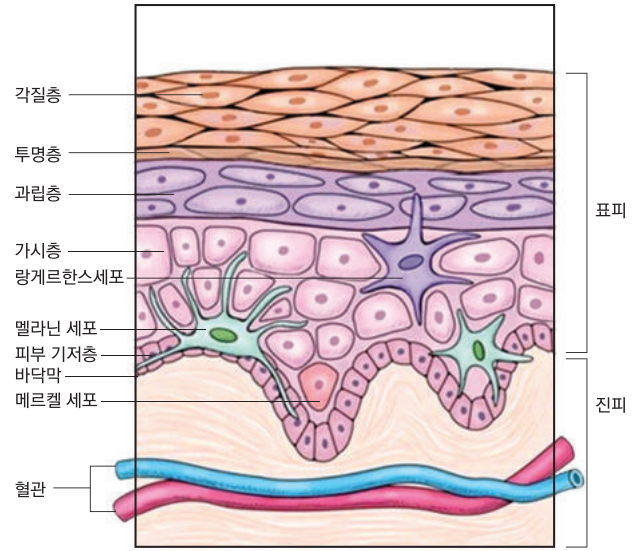
피부가 상처 없이 온전하기만 하면 딱딱한 각질층 자체가 방어막이 되며, 피지선에서 분비되어 나오는 피지도 일종의 항진균 작용을 나타낸다. 또한 인체에 질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피부에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세균들이 병원성 진균과 영양분을 두고 경쟁하기 때문에 진균의 서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진균은 표피층에 존재하는 케라틴을 먹고 살기 때문에 대개 표피만 감염시키고 인체 내로 침투해 들어가지는 않는다. 즉, 피부는 진균 침범에 강력한 방어장벽(Protective barrier)으로 작용하며, 혈청 중에는 일종의 진균 억제인자가 존재하여 혈관 이외의 부위로 이동하거나 정상조직에서의 성장이 억제되고, 심부 침투가 곤란하다.

주위 생활환경에 많은 진균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균증의 낮은 유병률을 보이는 것은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이 진균 감염에 대하여 높은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 방어

항원성이 큰 진균의 경우 랑게르한스 세포가 있는 표피조직에서 진균을 처리하여 면역세포 쪽으로 보내면 염증반응이 일어나고 T-림파구나 마크로파지 같은 식균세포가 작용한다. 급성 염증반응의 결과 피부발적, 수포, 농포 등이 생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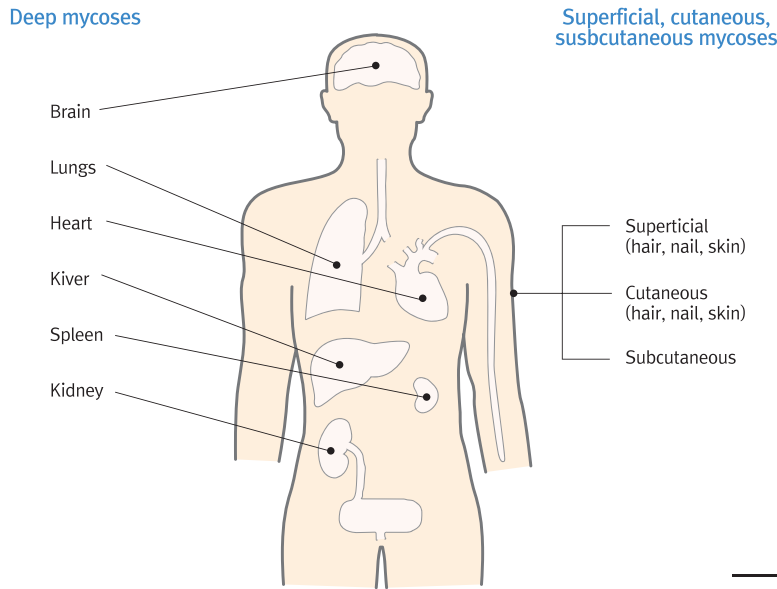


표피층을 구성하는 세포

진균증의 분류

진균성 질환에는 곰팡이나 효모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나 과민성 폐렴의 형태로 과민반응(Hypersensitivity)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진균중독증(Mycotoxicosis)은 독소를 생성하는 진균에 오염된 음식물 섭취, 흡입 또는 직접접촉을 통해 급성중독을 일으키기도 하고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때는 암(주로 간암)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진균독소 중 aflatoxin이 중독과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임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병원성 진균에 의한 진균감염증(Mycotic infection)으로, 발생기전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 진균증으로, 발생부위에 따라 표재성, 피하 및 심재성 진균증으로 분류하며 감염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표재성 및 심재성 진균증

발생기전에 따른 분류

- 1. **외인성 진균증(Exogenous mycosis)** : 감염원인이 체 내에 존재하지 않고, 토양이나 음식물 등을 통해 체내로 침입하여 감염을 유발한다.
- 2. **내인성 진균증(Endogenous mycosis)** : 만성적 질환으로 인한 신체상태 변화에 따라 평소 비병원성의 진균이 병원성을 획득하는 경우이다. 주로 장기적인 항생제 혹은 호르몬 투여에 따른 균교대현상으로 나타난다.

발생부위에 따른 분류

① 표재성 진균증(Superficial mycosis)

주로 피부사상균에 의해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과 피부 부속기관(모발, 손? 발톱)을 감염시키는데, 가장 흔히 걸리는 진균증으로 증상이 아주 심하지는 않으나 완치 또한 쉽지 않다. 덥고 습기 찬 곳에 지나치게 피부를 노출시키는 경우 감염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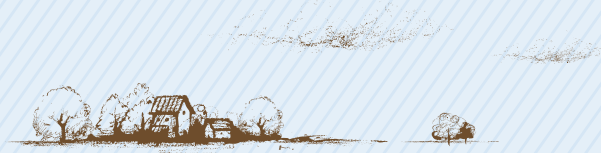
② 피하 진균증(Subcutaneous mycosis)

심재성 진균증의 일종으로 주로 토양균 등에 의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진균은 피부를 관통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피부에 구멍을 뚫고 피하조직으로 들어가 기생한다. 맨발로 일하는 농부들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③ 전신성/심재성 진균증(Systemic/Deep mycosis)

주로 어떤 질환을 앓고 난후 속발성으로 발병하는데, 근육, 뼈, 관절 등의 깊은 부위까지 감염이 파급되거나, 면역기능 저하시 진균 포자가 흡입되어 폐, 림프절, 골수, 간장 등 내장까지 감염시켜 발생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병을 일으키지 않던 균에 의해 감염 저항력이 떨어지거나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 (Immunocompromised host), 즉 영양실조, 알코올 중독, 암, 당뇨병, 백혈병, 감염증, 수술, 항생제 장기 사용, 스테로이드 투여, 면역억제제 복용, 바이러스 감염(AIDS 등) 등의 경우 및 정맥내 혹은 방광내 카테터 유치, 고단위 영양수액주사의 사용에 따른 기회감염(Opportunistic or Nosocomial infection)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주사용 전신성 항진균제를 사용하여 치료한다.



약대 동문회 국제산학협력기금 조성에 일조 - 중앙대 · 미얀마 AA제약재단 공동연구소 설립을 위해 50만불 협력-



지난 8월 4일 중앙대학교(총장 김창수)와 Pacific Medical Foundation(PMF, AA제약회사 그룹재단; 회장 조모카인)은 미얀마 양곤시의 Pan Pacific 호텔에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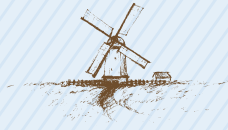
이번 양해각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중앙대학교는 약대 내에 'CAU-Pacific Myanmar' 연구소를 설립해 양 기관의 공동 학술연구와 학생 교육 활성화를 통해 미얀마의 제약산업 발전과 약학 분야의 교육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중앙대학교에 미화 5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기금을 미얀마 제약공장의 GMP시스템의 운영 및 약물의 제형개발 등 연구개발을 지원해 의약품 완제품 생산 등을 위한 산학협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약대 동문회 김수배(21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MOU에 20년 전부터 Pacific AA사의 파트너로 손잡고 일을 해오면서 2017년 GMP 공장의 완공식까지의 과정에 일조했고 양국의 제약

업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가교적 공헌자로 활약했다.

이어서 중앙대학교(총장 김창수)는 양곤약학대학교 (총장 이이틴)와 또 하나의 MOU를 체결했는데, 연구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손의동 교수가 4차례 양곤약대와 의대를 방문하여 학내 전액장학금제도(CAYSS) 프로그램 등 약학 현안을 소개한 성과이기도 하다. 2012년부터 양곤의대 산다씨와 양곤약대 퓨퓨킨씨는 학위를 받았고 현재 4명(미얀마 FDA 2인, 양곤약대 2인)이 박사과정에 있다. 장차 미얀마 약학교육과정의 개설, 2캠퍼스 건립계획 협력도 계획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대학교 김창수 총장을 비롯해 조모카인 AA제약 재단회장, 이이틴 양곤약학대학교 총장, 민투이 미얀마 보건체육부 장관 등 정부인사를 비롯해서 약학대학 홍종오 동문회장, 김수배 수석부회장 및 손의동, 이재휘, 서동철 약대 교수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부산동문회 원로회원 추억여행

황 명 석 (25회) 총무



5월 11일부터 2박 3일간 70세 이상의 원로회원들을 대상으로 추억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소에도 동문간의 우의를 잘 다져온 지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부산동문회는 후배들이 앞장서서 그동안 지역 약업계에 헌신하고 동문회를 위해 봉사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표시로 동문회의 특별기금을 기꺼이 사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일행은 속리산을 시작으로 일상의 번거로움

에서 잠시 벗어나 모처럼 여유 있는 발걸음으로 평창일대의 자연경관을 탐방했습니다. 이어 오대산 월정사의 전나무 숲길을 거닐기도 했고 동해에 접해 있는 속초 영랑호의 풍취에 취하기도 했습니다. 강릉 선교장의 한옥스테이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으며, 정동진을 지나 경주 월지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총 25명이 참가한 이번 이벤트는 '인생의 봄은 70대이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남기탁(11회) 자문위원의 총괄기획으로 회원간의 건강증진과 우의를 다지는 행복하고 유익한 투어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추억여행의 성공을 기반으로 기수별 여행을 계속할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부산동문회는 각박하기만 한 약업계 현실에서도 동문간의 우애증진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보다 나은 약사사회가 되게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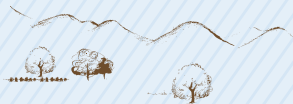


엄태항(14회) 동문 봉화군수 당선



엄 당선인은 “향후 4년 임기 동안 ‘혁신과 미래창조’를 통해서도 다른 봉화의 신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 보내준 성원을 절대로 잊지 않고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군민을 위하여 일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행복군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엄 군수는 민선 1·2·4기에 이어 7대까지 전국에서 이례적으로 4선 지방자치단체장에 성공했다.



김 구(12회) 자문위원 타계



본 동문회 자문위원 김 구(12회) 전 대한약사회장이 7월 19일 오후 2시 향년 73세의 일기로 타계했다. 고인은 경기도지부장, 약사공론 주간, 대한

약사회 부회장을 거쳐 35대, 36대(2008년 7월 24일~2013년 3월 6일)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했다.

대통령 국민훈장 목련장, 대한약사회 약사금탑, 경기지부 경기약사대상 등을 수상했다.



동문이 하나 될수록
연대는 만들어진다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동문님들의 정성으로 2017회계년도 동문회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8회계년도에도 회비납부의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대합니다.

납부기간 : 2017. 6.1~2018. 5. 31

회장단회비		600,000원
21회	홍종오, 김수배, 김진자, 노재하, 백윤경, 이승호 최병철, 한성희, 한상윤, 김중호, 양주석, 조형래	26회 김정수A, 반수호, 유영한, 최민규, 한갑현, 박정래
22회	강희윤, 고석순, 최광훈, 유대식	27회 곽나윤, 박영달, 이원일
23회	김수중, 박종화, 하종렬	28회 구영삼, 이해룡, 김희식
24회	이광섭, 이범도, 함삼균, 이규삼	29회 류형준, 박웅삼
25회	문태화, 이광인, 이현수, 최두주	30회 김광식, 윤미숙, 이장무
		32회 조양연

이사회비		150,000원
1회	손동헌	20회 김홍진, 김현태, 류화송, 문주기, 박기배, 배성진, 이극선, 이상일, 임경원, 조진환, 이영희, 최용철, 정찬헌
3회	강승조, 손석우	21회 고영근, 송진용, 안병현, 이상준, 한찬수
4회	이창우	22회 손의동, 오황영, 이명옥, 이현희, 전철호, 한만영
5회	김영배	23회 김영출, 박상진, 박희용, 홍순욱
6회	박정배, 안병한, 유상열, 김동열,	24회 장규옥, 임무호, 황규진, 함한성
7회	이기안, 정재일, 김영일, 박명신, 서명규, 김정부	25회 김희섭, 백광현
8회	박번일, 배영애, 조의환, 임상목	26회 정교현, 진희억, 하재일, 이종량
9회	권혁구, 이규진, 이근배	27회 유영한, 민병희, 박수길, 오순용, 오흥설, 박상규 현기원, 유재수
10회	유정사, 박호일, 이홍수, 방순환	28회 이영주, 양창국, 이병천
11회	고승하, 김창중, 김미자, 황공용	29회 김은진, 박웅삼, 한일룡, 김인혜
12회	노덕재, 이관하, 김 구, 심재웅, 염윤기, 우준하 이성우, 조택상, 남기탁	30회 김해승, 김혜수, 신일균, 최병태
13회	구연홍, 윤해선, 문재빈, 임유재, 최창엽, 이종각 박동규, 서국진	31회 김성민, 오대근, 오세정, 윤희정
14회	김동원, 김윤국, 구종모, 윤대봉	32회 안광열, 이경우, 정영복
15회	조찬휘	34회 김보원, 전형수, 한일권
16회	최창원	35회 최규룡, 서유정, 양윤정, 강익석
17회	김성지, 장재인, 신상직, 이완철, 정갑진, 선우영환 이희정	38회 최은영, 이재훈, 최은주
18회	강응모, 김애경, 조종형, 김기명	39회 이정근
19회	이경옥, 윤건섭	41회 김소연
		46회 원현식

일반회비		30,000원	
11회	강봉천, 구자역, 김학진, 남복석, 안홍신, 유홍문 이명옥, 이범진, 전창환, 최계순, 하만웅, 김기영 박상희, 차영진, 김철홍, 김학진, 장현소, 허정범 서세양, 남복석, 송상부	29회	장우성, 민희정, 이강현, 심미선, 강선영, 한규인 안성진
12회	김대건, 김동욱, 김용환, 우홍길, 유성규, 이수우 이정희, 임순성, 최덕구, 강창희	30회	강승역, 강현주, 고은숙, 김상의, 김완기, 라미숙 문미래, 송정숙, 원주현, 이경숙, 이호일, 전기남 조민숙, 최정진, 홍염미, 정문경, 도민숙, 이보애 최현희, 강현숙
13회	김창식, 신석준, 최승기, 최창조, 김세대, 전인식 김길영, 이우식, 김석규	31회	유영숙, 이정희, 류문숙, 강영관, 유두중, 김도형 유지영, 이동익, 송소연, 구상미
14회	김명수, 김원순, 김진행, 이강련, 전영표, 정도연 조병화, 채성기, 현수홍, 현해경, 홍성철, 류효성	32회	정세진, 김현경, 채영주, 안승희, 김형기, 나희진 박재홍, 이명선, 정현삼, 김지현
15회	김용규, 김윤빈, 김형수, 남석우, 박태효, 송현숙 이명숙, 이인석, 진충렬, 황인영	33회	김영재, 이종탁, 윤종배, 소정우
16회	김선기, 신규언, 윤영위, 조연심, 김광길, 박창호 권희문, 박상환	34회	김용수, 김영화, 김현숙, 민성철, 이 준, 이선민 진용균, 성선경
17회	원종천, 최해광, 신승백	35회	강의석, 김성훈, 양자영, 김주희, 우난숙, 이화순 손은경
18회	양만기, 여운숙, 육득윤, 이복숙, 최정순, 홍현식	36회	박종구, 방극상, 유수미, 유복진
19회	고문찬(고재무), 김동희, 남윤수, 박운홍, 배영덕 조안제	37회	김찬배, 서승희, 한덕희, 서보연, 전 승
20회	김길주, 김영식, 남덕자, 방금숙, 송열호, 이광영 이재형, 이종훈, 윤춘수, 정금숙, 박광우, 서종원 정영수, 김영남	38회	정필련, 성치순, 현수윤, 박종일
21회	강성무, 강인모, 김구영, 김용주, 백기홍, 전명선 정현수, 조 북, 신길득, 이병규, 장철숙, 김동학 류승률, 이차웅	39회	김상래, 신순옥
22회	김인선, 김태일, 박동우, 이명수, 천경호	40회	장미라
23회	나용태, 임창영, 천경호	41회	최현진, 박영진, 신유미
24회	김정무, 박관수, 오세홍, 정상수, 황규진A, 홍용기, 김태환, 김기환, 정종근	42회	최지혜, 문성원, 이창경, 김혜진, 민명기
25회	김선열, 김창현, 권세형, 김태원, 이수영, 이승정 이영제, 이동규, 조경래, 김두수, 여정희, 위성건	43회	장선영
26회	김봉일, 나종우, 박승순, 손영득, 신국희, 오승주 이순아, 이희영, 송관식, 김기형	44회	유정량, 정의찬, 고정봉
27회	전명수, 이연숙, 조광호, 김창식, 문연숙	45회	고기현, 박성희, 김지하, 정묘광, 박성희
28회	한성호, 이혁빈, 김상범, 유정수	46회	김은수
		47회	김영준
		49회	김성근, 강령아, 이선혜
		51회	김상아, 송호선
		53회	김가람, 최대림, 이강은
		55회	석형남, 박진철
		56회	고철우
		60회	변성민

2018-1학기 약학대학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	본동문회	2,000,000	생명약과학	김지수
2	본동문회	2,000,000	제약과학	조영훈
3	본동문회	2,000,000	제약학	강지선
4	본동문회	2,000,000	제약학	박유빈
5	본동문회	2,000,000	제약학	송우석
6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강수희
7	본동문회	1,000,000	약학	강영우
8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송우길
9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윤석환
10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이정환
11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최주현
12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하문민
13	본동문회	1,000,000	약학	한규민
14	본동문회(청호)	1,000,000	약학	변수현
15	본동문회(김명섭)	2,000,000	약학	김예희
16	여동문회	1,000,000	약학	이진현
17	성남동문회(금요회)-신설	1,000,000	약학부	이혜원
18	안양동문회	1,000,000	약학부	이지원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9	안산동문회	1,000,000	약학	김민정
20	천안동문회	1,000,000	제약학	김준하
21	부산동문회	500,000	제약학	이유나
22	26회동기회	1,000,000	약학부	홍순호
23	26회동기회	1,000,000	약학	박영호
24	28회동기회	1,000,000	제약학	김은경
25	나사모동문회	1,500,000	약학	김연준
26	생약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차상민
27	생약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서지혜
28	생체방어조절연구실-신설	1,000,000	제약학	강수희
29	병태생리학교실	1,000,000	약학	박세영
30	병태생리학교실	1,000,000	약학	오소연
31	약제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배다영
32	약제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민규태
33	약품물리반	1,000,000	제약학	강기오
34	약품물리반	1,000,000	제약학	안진수
35	팜유니온 학생회-신설	2,000,000	추후지정	
합 계		42,000,000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최저인급 인상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하며
성과가 없어도 이 모든것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폭염은 계속되어 분노와 저주를 정부에 쏟아 붓는다.
“세금 걷기 빼놓고는 잘 하는일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나 저나 이 더위는 언제나 끝날까요?



박희용(23회)
편집위원

80년대 말 신약 발매식에 초대받아 간 홍콩, 그 유명한
점보 플로팅 레스토랑에서 이름으로만 듣던 마오타이주를
욕심껏 마시고는 다음날 완전히 뺏어버렸다.
더운데 습도까지 높은 것이 무얼 의미하는지 모른 상태에서의
만용에 대한 확실한 징벌이었다.
언제부터인가 그 더위와 습기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사람도 나라도 제 정신이 아니다.



김광식(30회)
편집위원

이 무더위에도 동문회보발간을 위한 땀방울은 식을 틈이 없습니다.
2017회계연도에도 많은 동문들이 보내주신 회비가
동문회 운영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에도 더 큰 성원으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018 브랜드 고객충성도
진통제 부문 1위 (3년연속)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美브랜드키

SAMJIN 삼진제약(주)

제품 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Chita
Chita

게보린 광고 모델 래퍼 치타

연간 시간의
흐름을
가늠하는
민심은 커진다

39년의 믿음, 맞다! 게보린

한국인의 두통약 -

게보린[®] 정



[新 안전용기·포장]

빠르고 깔끔하게! 한국인의 두통약 게보린

[효능·효과] 두통, 치통, 발치 후 동통,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 타박통, 골절통, 발열시의 해열, 염좌통,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오한
[광고심의필 2018-1439-4701]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약(藥),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의약품 오남용 퇴치, 게보린[®]이 함께 합니다.

“이제 **성인**이지만
텐텐은 포기 못해요~!”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아랑

성인도 함께 먹는 딸기맛 영양제!

성장기, 허약체질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텐텐**®
추정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반가운 뉴스!

타르색소, 보존제 무첨가!
틀니건강까지 생각하는
클리덴트 출시!



양치한듯 상쾌하게
클리덴트

- 타르색소 없이 투명하게
- 상쾌한 향으로 기분 좋게!
- 99.9% 살균으로 건강하게!
- ☑️ 취침 전 담가두시고 아침에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문의사항은 080-282-2828 약국에서 클리덴트를 찾아주세요!

“
베나치오 효과를
보신 분들은
베나치오만 찾습니다
”



소화 안될때 빠르고 시원하게 베나치오



위운동으로
빠른 소화효과!

위운동을 촉진시키는 베나치오의 생약성분
위운동이 잘 돼야 소화가 잘 됩니다

인터넷에서 **베나치오** 를 검색하세요

빠르고 시원하게
베나치오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2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홈페이지 www.caupharm.or.kr 이메일 capa21@hanafos.com